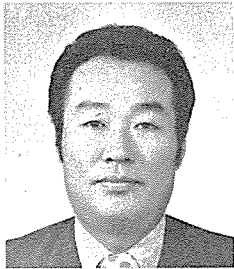


酪農調整機構의 必要性



増産爲主의 酪農을
需給均衡爲主의 酪農으로 轉換

美国飼料 穀物協會
회장 박 영 인

한국낙농산업은 1962년 이래 지속되어온 기술 및 경제개발에 힘입어 그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불균형에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 특히 집유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등 낙농산업의 발전 전망까지도 불투명하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낙농산업이 급후 장기적인 안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현재의 당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산업의 각 부문을 종합조정하는 낙농전담기구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酪農産業의 構造的 特性

1) 연관 부문이 많고 相互平衡을 이루기가 어렵다

낙농산업의 초기단계에서는 원유증산만이 산업의 최대과제이나 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연관 부문과의 균형적 성장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낙농연관 부문으로는 생산자재, 원유생산, 집유, 원유가공, 유제품유통, 유제품 소비등이 있다. 이들 관련 모든 부문이 기능적인 특화와 부분간의 균형을 이룰때 낙농

산업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많은 부문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므로 자유경제체제에서는 구조적인 상호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2) 생산이 硬直的이고 소비가 流動的이다.

원유는 많은 낙농가가 전국에 걸쳐 소량씩 생산한다. 또 목장개설에는 비교적 큰 투자와 장기간을 소요한다. 그래서 낙농의 진입(entry)과 퇴출(exit)이 어려워 원유생산은 매우 경직적이다. 이에 반하여 유제품 소비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제품개발과 소비촉진활동 여하에 따라 소비수준은 신속적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원유생산과 유제품의 소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만 맡길 경우 수급 모두 과부족의 문제가 생길 소지를 갖고 있다.

3) 供給過剩은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 20여년 동안 낙농부문의 기술개발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전통적인 낙농국의 농가 보호정책은 생산과잉을 몰고 왔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가 늘고있는 신흥낙농국에도 확산되었고 심지어는 기초단계에 있는 나라의 낙농에까지도 과급되고 있다. 오늘날의 낙농은 생산기술이나 수급면에서 서로 영향을 받는 세

계적인 산업(universal industry)이 되었고 공급과잉은 낙농선진국 뿐만 아닌 낙농국가 대부분의 일반적인 추세로 되어있다.

4) 각부문의 調整에 의해서만 需給均衡이 가능하다.

낙농산업은 관련부문이 많고 이들 부문간의 상호균형이 어려워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자유경쟁적인 체제로 방치할때 가장 먼저 생산자가 타격을 받게 되고 이어 가공업체의 사업불안을 몰고온다. 그러므로 낙농산업은 어떤 조직적인 체계를 통하여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종합조정해야만 비로소 수급과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원유생산과 유가공 부문의 조정이 없이는 낙농산업의 안정은 좀처럼 기대하기가 어렵다.

5) 産業調整을 위한 政策을 필요로 한다

우유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일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산자 협동조합이 합리적으로 조작 운영되면 수급조정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소망일 뿐 자유 경제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산자의 협동조합과 유업체의 경쟁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낙농산업전반의 조정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조정정책은 정부와 산업간의 독립적인 낙농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이 조정기구로 하여금 대행, 실시케 하는 것이 통례다.

2.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

1) 生産의 무질서한 擴大와 生産性的 低水準

한국낙농산업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신규진입과 규모확장이 무분별하게 계속되고 있어 공급과잉의 우려가 없지 않으며 고능력 지향적인 생산체계가 미흡하여 산업전체의 생산성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原乳流通의 혼란 및 非効率

현재의 원유유통(집유)체계는 원유가 부족하던 상황에서 유업체로 하여금 증산 및 집유기능을 담당하게 하던 시절의 유통인바, 공급과잉을 우려하게된 현급에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개선이 시급한 제도다.

3) 乳質標準化의 미비 및 檢査에 대한 불신

원유의 이화학 및 위생적 등급과 그에 따른 가격차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유의 계량과 품질 검사를 유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공정거래의 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데서 오는 생산자의 불만이 크다.

4) 集乳拒否와 爭奪

유업체가 집유를 전담하여 가공, 처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잉시에는 집유거부, 유대정산지연 또는 유제품 대상지불문제가 제기되고 공급부족시에는 원유쟁탈 및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

5) 乳製品在庫의 處理對策 미확립

생산원유를 전량 수집, 가공, 판매해야 하는 산업체제에서의 유제품 재고 누적은 바로 전산업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들 유업체의 책임하에 처분해야하는 산업구조인고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역효과가 적지않다.

6) 消費促進의 多樣化 미흡

현재의 소비수준과 앞으로의 신장여력으로 보아 다양한 소비촉진활동, 즉 제품 개발 및 홍보, 합리적 유통개선, 학교급식을 포함한 기관소비확대, 각종 소비자 교육과 서비스등이 필요한데도 아직은 그리 효율적인 것이 못된다.

7) 原乳 및 乳製品 需給의 不均衡

원유생산 및 공급은 자유방임적이고 유제품 소비는 원활하게 촉진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입의 적절한 조정에도 문제가 있는 까닭에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에 불균형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8) 生産者의 自助活動 부족

낙농산업은 그 구조적 특성으로 보아 생산자 주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의 생산자조직이라 할 수 있는 낙우회, 협동조합, 협회등은 자구적 조직 및 기능면에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9) 산업전반의 綜合調整機能 태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만을 고려한다해도 낙농산업은 누군가가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 주어야만 수급안정을 비롯한 관련 여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아직 이러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다.

10) 增産爲主政策의 상존과 狀況適應的 政策의 결여

지금의 낙농산업은 질을 높이고 양을 조절해야 하는 수준에 와있는데도 1967년 당시에 적합했던 증산을 주축으로하는 낙농진흥정책의 골격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기술 및 경제의 여건변화와 산업규모의 확장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이 적시에 제대로 안되고 있다.

3. 酪農調整의 必要性

1) 당면 問題의 複合性

한국낙농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그 내용이 매우 복잡적이라는 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어느 개별적인 한두가지의 문제를 풀

어간다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기술, 경제 및 정책면에 모두 도사리고 있는 광역, 분산적인 문제인 것이다.

산업주체인 생산자와 유업체의 입장에서보는 경영수익측면의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기술자의 견해로는 유우능력과 사양, 질병 및 시설관리, 우유위생, 가공처리 측면의 문제도 있고 산업전체를 보는 시각에서는 수급과 가격안정, 소비자의 복지, 나아가 산업의 장기적 발전대책면의 문제가 있을 만큼 그 범위가 넓고 복잡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상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욱 그 심도를 더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산업의 안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석구석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전체적인 시야내로 유인하여 종합관리하는 산업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이 절대 필요하다.

2) 産業安定基盤造成의 時急性

한국낙농산업은 바야흐로 증산위주에서 수급균형위주로 체질적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기술 및 경제뿐 아니라 정책의 방향도 그에 따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혼란의 연속에서 정체의 길을 밟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낙농산업이란 원유의 생산 및 상품적 특성으로 보아 자유시장체제에 방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도든 공급과잉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때가 바로 수급균형을 향한 전환적 체제개선의 시기인 것이다. 이에 비추다면 한국낙농산업은 이미 수급조정을 위한 제도정립이 완료되었어야 한다.

그 동안의 낙농산업이 정부주도적 보호 밑에서 성장되어 왔고, 비 민주적인 능동적 위치에서 오랫동안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산업은 스스로가 당면문제를 풀어 안정적 발전 기반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그 대책으로는 산업의 특성과 장단기적 목표 및 현실적

업장을 충분히 검토한 토대위에서 마련되는 새로운 조정기능의 수행이어야 하며, 임시응변적인 기존조직과 기능의 활용이라던가 정치적으로 변색된 관변 기관적 기구의 원용이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3) 調整機構의 必要性和 機能範圍

한국낙농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인문제를 통합해결하여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기능을 종합 조정하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 기구는 협동조합과 유업체 등 낙농산업 연관 모든 부분과 정부 및 소비자가 다같이 참여하는 산업과 정부의 중간 성격적 법정, 독립조직으로 하여 우유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공통적인 문제를 조정 해결하는 기능을 부여받는다. 조정기구의 기능은 기구가 직접담당하던가 필요에 따라 다른 조직에 「대행의뢰, 또는 단순한 조정을 위한 지침의 설정과 지도에 임하는 등 매우 신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 주요기능의 범위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원유생산 : 생산자재의 공급, 종축의 수출입, 효율적 생산지도, 생산조절등, 2) 원유등급 : 품질 및 위생에 따른 등급제정, 3) 원유가

격 : 생산자의 원유가격 결정, 4) 원유유통 : 생산전량의 집유 및 배분전담, 5) 원유검사 : 계량 및 검사전담, 6) 유대전담 : 유업체로부터 수령하여 생산자에게 지불, 7) 원유가공 : 가공처리, 제품개발, 품질향상등 지도, 8) 유제품유통 : 유통합리화지도, 9) 유제품수급 : 수출입, 재고, 수급의 일괄 조정관리, 10) 소비촉진 : 소비자가격의 적정화, 소비자교육, 제품홍보등, 11) 산업위험 : 안정기금계정을 설치 운영하여 일체의 산업위험(유대정산, 재고처분, 수출입관리, 기구운영등에 따른 위험)전담, 12) 참여의무 : 산업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생산자, 유업체, 유통업체등)의 조정대책 및 소정규제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 13) 행정수원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금 및 기타의 행정 지원 받음. 14) 연구개발 : 장기발전계획, 정책형성 및 평가지원등 낙농조절기구는 산업의 자유경쟁체제를 존중하면서 부문간의 균형과 전산업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하는 조직이다. 동시에 생산자조직의 육성발전과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업무에도 전념하여 공정거래, 능률향상, 산업안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한다. 이러한 조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한국적 현실과 장래에 적합한 기구의 골격형성 및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한국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이 조속히 닦아져야 할 것이다.

경 축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우유도 기정마다

금메달도 기정마다